

■ 광주 연고 프로축구단 어떻게 돼가나

광주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의 창단 만료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창단 주체인 광주시의 창단작업은 지지부진하다. 2008년 말까지 프로구단 창단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04년 한국축구연맹에 낸 40억원의 가입비는 공중분해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도 시인 광주의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의 프로축구단 창단 상황을 짚어봤다.



광주상무 축구단 엠블럼

◇2008년 광주상무 축구단 계약 만료= 광주시는 지난 2002년 4월 13일 국군체육부대와 2003~2008년까지 6년간 상무축구단 운영 협약을 맺었다.

시는 광주상무축구단 창단 1년 뒤인 2004년 3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축구연맹)에 시비 40억원(가입비 10억원·축구발전기금 30억원)의 입단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축구연맹은 당시 상무축구단이

경우 현 상무축구단의 연장운영을 고려하고 있지만, 축구연맹과 국군체육부대에서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서종환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프로축구단 창단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아직까지 나서는 기업이 없다”면서 “차선책으로 시민구단 창단 방식을 고려중이며, 빠르면 올 연말쯤 어떤 형태로든 창단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창단 가능성은? =대기업 창단은 광주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방식이다. 시는 대기업이 광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경우 축구연맹에 내놓은 입단비를 조건없이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광주월드컵경기장 무상사용 등 다양한 혜택도 제시한다는 복안



광주 상무축구단 서포터즈들이 지난달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광주-제주전에서 관중석 한편에 '2009년 광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광주 상무 제공〉

상무 계약 만료... 市 준비 '지지부진'

내년까지 창단 못하면 40억 날릴 판

월드컵 4강 성지→축구 불모지 우려

정상적인 프로구단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가입을 허용했다.

입단비 완납 후 5년내인 2009년까지 광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경우 가입비 40억원을 면제해 준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5년내에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지 못하면 40억원을 되돌려 주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창단작업 어떻게 돼가나=광주시는 ▲지역 대표기업 창단 ▲시민구단 창단(광주시+시민주+지역기업) 등 2가지 형태로 프로축구단 창단을 구상중이다. 하지만 갖가지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무산될

이다. 하지만 이같은 좋은 조건에도 창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100억원에 달하는 창단 비용과 연간 100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구단 운영 자금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업 접촉을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다.

◇시민구단 창단 가능성 가장 높아=시민구단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창단 방식이다. 시민들이 주체가 돼 시민주를 공모하고 지자체와 지역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프로축구 14개 구단중 시민구단은 모두 4개팀이다. 시민주 공모(1주당 5천원)로 대구 FC는 160

억원을, 대전 시티즌은 60억원, 인천 유나이티드는 168억원, 경남 FC는 180억원을 끌어 모았다.

여기에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광고지원으로 20억원~100억원씩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시민구단을 창단시 시민주 공모로 최소 100억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구단 창단을 위해서는=우선 대기업 창단 또는 시민구단 창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급선무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프로구단 창단에는 통상적으로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프로구단 창단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시의 현재 준비상황은 구상단계로 백지상태나 다름없다. 올 연말이 지나면 '발등의 불'이 될 수도 있다. 창단이 안되면 시비 40억원도 사라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14개 프로축구단 운영 현황

팀명	연고	주경기장	창단일	창단방법	연간 운영비 및 운영주체	지자체 및 기업체 지원액
수원삼성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1995. 12. 15	모기업창단	180억원 삼성전자	
포항스틸러스	포항	포항종합경기장	1983. 11. 1	모기업창단	120억원 포스코	
울산현대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	1983. 12. 6	모기업창단	140억원 현대중공업	
전북드래곤즈	광양	광양종합경기장	1994. 11. 1	모기업창단	120억원 포스코	
F.C.서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1983. 12. 1	모기업창단	170억원 GS칼텍스	
전북현대	전주	전주월드컵경기장	1994. 11. 1	모기업창단	100억원 현대자동차	
부산아이파크	부산	부산월드컵경기장	1983. 12. 1	모기업창단	100억원 현대산업개발	
성남일화	성남	성남종합경기장	1989. 3. 18	모기업창단	150억원 통일재단	
제주유나이티드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	1982. 12. 1	모기업창단 지자체 컨소시엄 (주)SK, 제주도	90억원	광고지원 20억
대구F.C	대구	대구월드컵경기장	2002. 10. 18	시민주공모 160억원발행	90억원 대구광역시	광고지원 45억
대전시티즌	대전	대전월드컵경기장	1997. 3. 12	시민주공모 60억원발행	80억원 대전광역시	광고지원 53억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인천월드컵경기장	2003. 8. 10	시민주공모 168억원발행	110억원 인천광역시	광고지원 50억
경남F.C	창원	창원월드컵경기장	2006. 12. 13	시민주공모 76억원발행	140억원 경상남도	광고지원 100억
광주상무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003. 3. 17	국군체육부대 임대운영	20억원 광주광역시	광고지원 6억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생활 환경 '업그레이드'

광주지역에서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의 관리계획이 새롭게 바뀐다.

광주시는 최근 택지개발 뒤 10년 이상 된 화정·금호·하남·상무 등 5개 지구에 대한 1종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리계획은 건폐율·용적률·건물높이·교통처리 계획 등을 세우는 것으로 건축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서구 중앙공원을 끼고 있는 금호·화정·백일·쌍촌지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호·화정지구로 통합 조정 개발된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구 금호지구·광산·하남지구는 간선 도로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생활을 위한 근린공원(소공원)이 지정됐다. 하남지구의 무진로 주변 일반 상업지역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상

복합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이들 지구는 일반·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아파트 건립 제외)에 따라 최대 2천㎡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점포용 주택 건축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면 도로의 노상주차면 설치와 일방통행계획 수립 등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조만간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 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라든 10년 이 넘게 되면 주변 여건 등이 많이 변하게 돼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며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새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10년간 산업성장 '역동적'

산업연, 종사자 수 등 3개 지표 증가율 10위권

광주시가 최근 10년간 광역시 중 가장 괄목한 산업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0년간 지역별 요소투입과 산업성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0년간(1995~2005) ▲전 사업체 종사자 수 ▲유형고정자산 ▲R&D투자액 등

요소투입을 나타내는 3개 지표의 증가율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모두 10위권에 포함됐다.

광주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수의 감소세(연평균 -0.3%)가 뚜렷한 현상을 극복하고 총남·경기 등 5개 도(道)지역과 함께 1.4% 증가했다.

지식기반 제조업도 전국 평균 증가

율 3.6%의 3배를 웃도는 10.9%로 제 2위였다.

유형고정자산 잔액은 4.4% 증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개발 및 연구(R&D) 투자비율도 12.3%로 대전·울산·인천 등 10% 이하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최후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민선 3기 이후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과 관광업, 자동차, 가전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의 육성과 성장이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신 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안복지협회 상해연락처 671-4050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도안내 1544-7788	광주 YMCA 527-0011	●국번없이 119
대안광명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 673-0112	●경찰청장 366-0112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번없이 1388	●경찰지침 233-282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제종합상담센터 1588-0060	●사이버센터 02118
	●국세청 1588-0060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병무청 1588-9090	여기통수사대 (공부) 229-0118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전화) 367-0118
	광주 YMCA 524-5400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주부교실 232-0643~4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복합서비스문제연구 369-9881	●광주이동전화예방센터 1381
●당직번호(27월) 자명수 233-7701		●광주노인화장대예방센터 1389
●법무사회 법률상담(27월) 강익수 239-1809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게 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통수업 기가통신사, 유선전화 100% 무료, 무선전화도
 상담전화 1588-8499 080-222-0100